



상호금융 금리 9.5% 로 인하

'농협개혁안' 주요내용

농산물·가공식품 원산지 단속강화

나고야 국제 양계·양돈 종합전

전염성 간염 백신 품목허가

오리고기 수입 대책마련 시급

육용오리 출하일령 다소 지연

오리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할 듯

오리전염성 간염 사육농가 피해 방송보도

중국산 오리종란 수입 불투명

수입육 불법유통 근절 대책시급

2001 한국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오리배합사료 가격 7.5% 인상

상호금융 금리 9.5% 로 인하

일선 농협의 상호금융 금리가 평균 10.72%에서 연말까지 9.5%로 인하되고, 2002년부터는 시장금리에 따라 연동된다. 농업정책 자금의 융자금리는 현행 0~8%대의 7단계에서 0~6%대로 단순화되고,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해 인하된다. 거치 및 상환기간도 현행 19개 유형에서 10~12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정책자금 취급에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기계 구입자금부터 일반은행에도 창구를 개방하고 2002년까지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타 사업에도 확대한다.

1억원 초과 개인보증시 적용하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는 올 6월까지 폐지된다. 농신보 보증시 일선농협이 10~20%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

를 2002~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18일 대농민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금잉여와 저금리 추세 속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현행 농업금융시스템과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농업금융개혁 위원회 (위원장 성진근)의 권의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김주수 농림부 농정국장은 "농업금융은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정책자금 수수료와 예대마진 조정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안' 주요내용

농협중앙회가 최근 조직부문 컨설팅을 통해 기구개편, 인력감축, 일선 조합 상호금융업무 다양화, 사료공장 이관, 영농자재 사업영역 확대 등 협동조합 개혁 계획과 검토과제 등을 제시했다. 농협개혁위는 이달부터 협동조합개혁안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겨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실무소위에서 발표된 농협개혁안 요지이다.

@농업정책금융-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우선 정책자금의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개방, 2002년까지 농기계구입자금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농업종합자금제도로 통합 확대한다.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을 사업성격에 따라 유형화, 단순화한다.

@농신보 및 농업금융 인프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1억원초과 개인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며, 부분보증제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정책자금 취급기관 개방에 맞춰 농신보 보증제공기관의 농업금융을 취급하는 일반은행으로 확대한다.

표준화된 농업회계준칙을 마련해 농가간 또는 업종간 경영성과 비교를 원활하게 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농기계사업- 계통구매방식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계약(구매가격, 기본장려

금)외에 조합이 업체와 구매특성에 따라 판매장려금 등에 관해 직접 추가약정을 체결토록 2002년까지 전품목에 허용한다.

농산물·가공식품 원산지 단속강화

5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식품 업체는 물론 이들을 취급하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전국 36만개 식품관련 업체의 경우 연 1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GMO)표시에 대한 정기조사를 받아야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원산지 단속이 수시로 진행돼 해당 업체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나 홍보·지도 개념의 연 1회 정기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식전환의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업체 및 업체의 중복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 방문시기와 조사공무원의 서명을 기록하는 조사실명제를 시행,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한 농수산물이 대량 수입돼 유통될 시기나 부통유통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발된 몰량 뿐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몰량까지 포함시켰다. 가공품도 1차 적발 후 두 번째 단속에도 걸리면 최고 1천만원의 한도에서 1차 적발시 부과된 과태료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품의 경우 정부차원의 품질인증에 대한 공신력 제고차원에서 가공업체나 취급업소가 잔류농약이나 위해물질 허용기준치를 1차위반해도 품질인증을 취소토록 명문화했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체들이 정기 의무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실질적 시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염성 간염 백신 품목허가

2001년 6월 6일(수)-8일(금) 동안 약 300여 양계, 양돈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국제 양계, 양돈 종합전이 일본, 나고야시, 나고야 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3년 마다 개최되는데 최신의 양계, 양돈시설, 기자재, 처리, 가공 기기를 비롯 고품질 상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 등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걸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충실한 최대의 양계, 양돈 전시회이다.

또한 병행하여 개최되는 각종의 특별 세미나는 구제역을 비롯한 세계 양돈 업계의 시

급한 문제점에서부터 동 산업이 안고 있는 장기적인 무역분쟁등 다양한 각도의 쟁점 등을 제시하여 미래산업으로서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줄 아시아 지역 최대의 축제이자 최고의 전문전이 될 것이다.

나고야 국제 양계, 양돈 종합전

오리전염성 간염백신에 대한 품목이 허가되어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새끼오리 폐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녹십자수의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오리전염성 간염백신에 대하여 4월 28일자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는 경우에 따라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며 이번 오리전염성 간염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품목 허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리전염성 간염에 대한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큰데 반하여 뚜렷한 대책이 없어 오리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관계당국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를 받은 녹십자수의약품은 간염백신을 생산하여 검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판매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들어 간염백신이 판매되기 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녹십자수의약품 관계자는 「

품목이 허가된 만큼 오리전염성 간염백신 생산에 들어가 바로 검정에 착수할 계획이나 백신판매를 위한 준비가 늦어져 오는 7월경이나 농가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로 새끼오리때 피해를 입고 있는 오리사육농가들이 이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한 백신사용은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고기 수입 대책마련 시급

국내 산지오리가격이 지난 3월부터 크게 오르면서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량은 835톤으로 전월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 증가가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4월한달간 수입된 오리고기의 국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55건에 760톤으로 전체수입량의 91%를 차지하였으며 태국은 4건에 47톤이 들어와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은 2건에 27톤이 들어왔으며 프랑스는 2건에 0.3톤 수입에 그쳤다.

금액상으로 1백21만2천불어치가 수입되어 4월기준환율 대비 15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별 수입가격은 중국에서 1백5만불어치가 수입되어 kg당 1.38불선에 수입되었고 태국은 7만1천불로 kg당 1.5불, 미국은 3불선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량은 2천2백62톤으로 전년같은기간 수입량 868톤 대비 2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전체 수입량 3천9백60톤에 비해서는 57%에 이르는 수준이다.

육용오리 출하일령 다소 지연

5월들어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다소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육용오리 가격이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리사육업계에 따르면 5월16일현재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중부권의 경우 38일에서 40일령까지 도달해 종전 출하일령에 비해 3-4일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용오리 출하가격은 kg대비시 종전 2천1백15원에서 1백원정도 하락한 2천37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6일부로 육용오리 가격을 종전보다 5백원내린 5천원, 새끼오리 가격은 종전 1천2백원에서 2백원내린 1천원으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마로서 이지역 육용오리 가격은 kg대비 2백원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육용오리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산 통오리 수입에 따라 국내 소비물량의 상당량이 수입품으로 채워지고 있고 농번기 철에 접어들면서 소비량역시 다소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사육업계 한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항시 농번기 철에 접어들면 육용오

리 출하일령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육용오리 출하일령 지연은 예년에 비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오리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할 듯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17일 KBS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서 담백한 맛 풍부한 영양 오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프로그램이 방영돼 오리고기 영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오리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옛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어온 오리는 담백한 맛과 약리적인 효능까지 가지고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며 클레스테롤이 적을 뿐만아니라 해독력이 강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양식품이라는 오리에 대한 영양가와 오리의 한방학적 효능 등 오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는데서 기획됐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연사로는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장명순 교수와 요리연구가 김희순씨가 출연해 오리의 영양과 가정에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오리고기 요리가 선보였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은 오리는 삼국시대부터 먹어온 것으로 한의학자는 추정했으며 일반인들이 왜 오리고기를 좋아하는지, 오리에 관한 잘못된 편견 등에 대하여 취재방영하였다.

또 오리의 영양가와 종류, 유향오리 등에 대한 영양가는 물론이고 닭과 쌀 등에 비교해 오

리고기 영양을 비교하므로써 오리고기 영양의 우수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경제성 조류이면서 음식물찌꺼기를 먹어치워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리는 가축으로 소개됐다.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로는 오리고기 두부선, 오리탕, 오리가슴살 샐러드, 오리강정등이 소개되었으며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비결도 소개됐다.

오리전염성 간염 사육농가 피해 방송보도

- 일부 소비위축우려 시각도

지난 4월 25일 오리전염성 간염에 대한 농가피해에 대한 방송보도후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날 MBC 및 SBS 방송에서 보도된 오리 전염성 간염에 대한 농가피해 보도가 일부 구제역 및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전염성 간염이 오리사육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멘트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날 방송보도는 단순히 오리전염성 간염에 의한 농가피해가 커 대책마련히 시급하다는 보도였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오리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보도로 오리역시 다른 축산물과 다를게 없다는 시각으로 비취질 수 있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또한 정부 관계자의 멘트도 문제가 되었는데 농림부 관계자는 오리전염성 간염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고하여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관련하여 수의관련 업계 관계자들 역시 문제가 있는 시각임을 피력했다.

법정전염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오리 역시 현행법상 가축에 해당하고 이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이런식의 발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무튼 이와같은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협회는 생산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방송보도 후 소비에 어떤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오리종란 수입 불투명

중국산 오리종란 수입이 현재의 상태서는 상대국과의 협의절차후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오리종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는 지난 4월 중국산 종란 수입육직업과 관련하여 종란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바있다. 이와관련하여 농림부는 실무부처인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회신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질병유입의 위험성이

있어 현행 종란수입위생조건 이외에 별도 협의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산 부화용 오리종란은 당분간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육 불법유통 근절 대책시급

지난 3월부터 오리사육량 감소로 산지오리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육을 원산지 표기없이 그대로 유통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3월의 경우 중국산 수입육의 경우 통오리는 수입되지 못했으나 4월들어서면서 통오리를 위주로 수입이 이뤄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한 유통업자는 수입육의 경우 국산육에 비해 중량이 많이 나가고 외견상 품질역시 떨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가격은 국산육보다 크게 저렴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관계자는 국산오리고기의 경우 물량이 부족해 워낙 작은 체중의 오리가 출하되고 있고 이마저도 구할 수 없어 수입육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육의 불법유통은 대부분 도매유통상에서는 중국산표기가 되어있는 박스 그대로 소매유통업자에 전달돼나 소매유통업자가 냉동된 오리를 물에 하루밤 해동시켜 불에 그을리는 토치를 통하여 국산육으로 둔갑되어 요식업소등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 오리고기 유통업자 한관계자는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처가 수입육에 의해 잠식되어 결과적으로 사육농가 육용오리 출하지연으로 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별로 대책은 물론이고 본회 명예감시원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참여에 의한 국산오리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01 한국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 오는 7월5-8일 4일간

2001년도 한국 국제 축산람회가 오는 7월5일부터 8일까지 4일에 걸쳐 무역센터 코엑스 1층 태평양 홀에서 개최된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축산"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축산관련 식품 및 기자재등이 전시되며 부대행사로 우리축산물 요리강습회 및 요리대회, 축산인 대회 및 세미나, 우수축산인 및 기자재업체 선발 시상, 축산물 홍보관 설치운영, 축산지도자와 소비자 단체 교례회, 안전축산물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 우수축산물 및 가공품 선발 시상, 축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시품 카다로그 및 디렉토리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되며 자세한 문의는 02) 588-7651/ 팩스 02) 588- 7655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부스당 가격은 3m×3m 1부스에 1백10만원에 조립식부스 설치비용 38만5천원이며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로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배합사료 가격 7.5% 인상

일반 배합사료 업체들의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 14일부로 평균 6 %선 인상되어 사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가 농협중앙회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농협과 계약을 맺은 배합사료 업체들의 배합사료 평균 인상가격은 품목별로 양돈 6.08%, 낙농 6.43%, 비육우 6.06%, 기타 사료 6.32%가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회가 회원농가에서 사용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오리사료의 인상폭은 이보다 높은 7.5% 인상되어 사료 kg당 20원 포당 500원 내외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오리수당 생산비가 1백20원에서 140원내외의 생산비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오리사육농가들은 출하일령지연과 사료값 인상으로 농장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